



5일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롭게 탈바꿈한 '문화터미널 안성'을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첫 방문지로 찾은 송하진 도지사가 황정수 무주군수, 유승열 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문화터미널 시설을 둘러보고 함께한 도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문화터미널 안성 'OPEN'

안성버스터미널서 개소식
주민·외부 관광객 위한
작은도서관 등 갖춰져

문화터미널 안성 개소식이 5일 무주군 안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북도 지사와 무주군 황정수 군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과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전북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이영수 대표를 비롯한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본보 2월 5일자 12면>**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가야금 병창 등의 축하공연을 함께 관람했으며 시설을 둘러보며 진행 중인 전시회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의 어울림과 활동들이 문화터미널 안성을 채우고 밝히며 발전시켜 나갈 자원이 되는 것"이라며 "말끔하고 아늑하게 재정비된 이 공간에 살맛나게 하는 일들이 가득 담기기를, 문화예술로 향하는 열기,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오르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문화터미널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역의 첫 관문인 터미널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 기

반으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조성한 것으로, 도내 소재 여객자동차 터미널 34곳 중 공모를 통해 대상지 2곳을 선정(2017년 5월)했다. 무주군 안성시외버스터미널은 사업의지와 아트공간으로서의 잠재성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이영수 대표는 "터미널이 지역주민과 안성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 기쁘다"라며 "안성면 나아가 무주군의 활력이 문화터미널 안성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터미널 안성 조성에는 사업비 2억2,000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8일 2018년도 사업설명회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8일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 사업 목표 및 전략, 주요 사업 소개(공모사업·제작지원·창업지원·교육사업) 등 사업 담당자와 참여자

간 질의응답을 한데 모았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이번 설명회는 문화콘텐츠, 게임콘텐츠, 지역특화콘텐츠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방법은 사업설명회 홈페이지

(<https://goo.gl/AA8hAU>) 또는 현장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신후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콘텐츠 기업 종사자와 창업자들 간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자리이며, 콘텐츠산업의 미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자연과 인간의 황폐화 문제 시각화

전북도립미술관 여은희 개인전 '영원한 봄의 땅 II-슬릿(Slit)'

태피스트리(직조) 작가 여은희는 1990년대 '실로 그리는 회화'의 세계에 빠진 뒤 줄곧 이에 대한 작업을 펼쳐왔다.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관도 변천을 거듭했다. 10년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화두로 작업활동을 가졌으며, 이후엔 전통문양과 색채를 재해석해왔다. 현재는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환경·자본주의·인권 등을 주제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오는 12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 울관에서 '영원한 봄의 땅 II-슬릿(Slit)' 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선 자본주의의 구조가 파생시킨 자연과 인간의 황폐화되는 문제를 시각화한다. 슬릿 slit는 자본주의 사회모순의 알레고리(allegory, 우의)로 틈·구멍·상처·찢다·베이다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가는 슬릿이라는 원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파괴되는 상실의 이미지를 효과적이고 우의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 속 건조한 갈증의 노랑, 깊은 심연의 감성을 울리는 보라, 고요하고 냉철한 회색

은 상실과 상처를 극대화한다. 물감이 번지고 섞이는 색채 이미지는 슬릿의 분리 이미지와 함께 대조를 이루는 동시에 조화를 형성한다. 작가는 갈라져 터지거나 찢어지고 베인 이미지에서 시대의 봉합되지 않은 상처와 인간의 상실감을 본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뇌로 대변된다. 그는 이번 전시에 대해 "사람이 소유한 물질이 아닌 인성을, 자신이 아닌 자연을 깊고 넓게 향유할 수 있는 삶에 눈을 돌리고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작가는 전주대 산업미술학과 및 원광대 대학원 섬유미술전공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 미술이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4번째 개인전이며 '크로키'를 응용한 '타피스트리전'(1998, 익산), '주머니 속의 별들'(2011, 서울), '동글게 동글게'(2012, 서울) 등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Made in Jeonju'

2월 상영작에 채한영 감독 작품 2편 선정

사막 한가운데서·선아의 방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전주영화제작소 후반제작 지원사업의 선정작품 또는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상영하는 'Made in Jeonju'를 선보이고 있다. 'Made in Jeonju'의 2월 상영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한영 감독의 '사막 한가운데서'와 '선아의 방'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연속 상영한다. 2015년도 후반제작 지원작 '사막 한가운데서'는 무언가를 묻기 위해 공사현장을 배회하던 남자가 우연히 경비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온 중일엄마와 마주치게 되고, 사라진 아이 '종일'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정해은 기자**

작품은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단편부문에 초청되었으며 그리스 의 'Taras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국제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2016년도 하반기 후반제작 지원작인 '선아의 방'은 할머니를 여고 파지를 주며 혼자 사는 소녀 선아에게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찾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단편부문에 초청되었으며, 제17회 전북 독립영화에서 아무진상(우수상)을 수상했다. 각 회차 1시간 전부터 티켓박스에서 선착순(1인 1매)으로 좌석 지정을 받은 후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